



FRESH, 살아있는 복음을 마주하다

휴 홀터 지음 | 박일귀 옮김 | CUP

‘시원하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내 심정이 그랬다. 그리고 ‘괜찮을까?’였다. 영문 제목 ‘FRESH’만큼 생생하게 날 것 그대로를 먹는 팔딱거림이 가득했다. 교회생활과 종교로 국한되어 버린 현대인의 믿음에 도전을 주는, 진짜 복음적인 삶이 그려진 생동감 넘치는 이 책은 믿음 그대로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괜찮다.’ 물론 부담도 있다. 날 것이 그러하듯 입에는 뻣뻣하고 삼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여전히 예배당과 성도 수, 프로그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편하고, 저자가 말하는 생생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 외면하고픈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말로 치장된 고결함과 그로 인해 높아진 영적 교만, 공상맞음을 가장한 신심마저도 접어야 하기에 마주하고 싶지 않다.

선생님, 교회는 얼마나 벌어요?

과거 고등부 교사로 섬기던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주일학교에서 만나 볼 수 없는 학생들을 만났다. 어느 날 밤, 집앞으로 찾아왔다. 자신은 합법적으로 링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격투기가 재미있어서 어른이 되면 체육관을 운영할까 한다고 했다. 그러다 교회

에 다니며 다른 꿈이 생겼단다. “선생님, 교회는 얼마나 벌어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속칭 교회생활을 몰라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보고 저 아저씨가 누군데 앞에서 재미없는 말만 하나 하며, 어른들이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 맞대응하던 아이였다. 교회생활은 물론 심지어 종교에 대한 어떤 프레임도 전무한 상태로 여태껏 몇 번 출석한 교회를 보니 자신의 직업으로 적당하다 생각했나보다. 교회를 체육관처럼 운영할 꿈을 꾸는 것이다. “내가 교회를 사서 설교 재미나게 잘하는 아저씨를 고용하면 사람들이 돈 내잖아요(현금을 그리 생각했다). 그럼 난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아주 망측한 얘기일까? 이쉽게도 겪은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어쩌면 신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 공공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시대 믿음의 지도는 어떠한지 반문해 본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알아가고 익히는 것이 하나님일까? 교회생활일까? 물론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한다. 문제는 역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믿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칭한다.

예수님을 닮아 가자 말하는 우리 삶이 누군가 따라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배당과 성도 수, 프로그램과
교회 뒷담화가 넘쳐 나는 시대에
십자가를 목에 메달기만 할 뿐 아니라
세상에 새겨진 문신처럼
마음에 품고 성육신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가고 싶고 닳고 싶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인가? 휴일도 주말도 평일저녁도 교회생활로 가득찬 '궁상맞게 닳고 싶지 않은 딱딱하고도 고지식한' 집단인가? 나의 주일 성수는 예배인가, 봉사인가?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목회자의 성추문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은 적실한가? 이를 믿지않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답해야하는지 이 책의 술한 질문들은 삼키기엔 뻑뻑하고 생략하고픈 이야기다. 마치 교회생활을 전혀 모르고 그저 궁금해서 다닌 그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처럼 날 것 같다.

물론 교회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또래집단이 그러하듯 나중에는 무리였다). 그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아직은 미치지않았으나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셨고 교회 분위기가 흐려진다 염려하셨다. 다행히 아이들은 교회생활에 잘 적응했고 훗날 어른들과도 나름 예의바르게 지냈다. 기대하기는 다음 장면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바른 주일학교 학생회장이 되었다거나 신학생이나 사역자가 되었다는 드라마틱한 간증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교회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은 식었고 거기까지였다.

저자는 믿으려 마음먹은 이에게, 아직은 호기심만 가

득한 이에게 구구단 외듯 복음을 선동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한다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구호로 외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답하자니 당시 내 모습이 학생들에게 선동자였을지 증인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증인은 증거를 믿는다는 전제 하에 비로소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믿을 만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 대신 죄수를, 형제 대신 개종자를, 가족 대신 바리새인을 만들고 말 것이다."(52p)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과연 나는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취졌을지 자문해 본다.

그분은 불신앙을 존중하셨다. 아직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친구, 눈먼 자, 갇힌 자, 절름발이,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부르셨다. 예수는 그만큼 죄인들이 예수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셨다. 죄인들의 지난 이야기들을 아셨고, 그것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것도 아셨다. _59p

시대 꼬집기

이 책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incarnation)은 어떠했을지 시대 상황과 현재 우리 상황에서 묻고 답한다.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끈끈하게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뒷골목에서 알음알음 쌓인 평판(reputation)을 통해, 진리에 대해 그들과의 관계, 상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떤 경건의 비밀을 품은 대화(conversation)로 이끄셨는지 삶으로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식 만이 아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직면(confrontation)하게 도우며, 변화(transformation)에 이르기까지 5단계를 말한다.

우리는 기다리기보다 하기에 능숙하다. 무엇인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축소한다. 조금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진짜 임재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하고 크시며, 우리가 지향하는 영적 건강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신앙고백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시다. 이 시대의 안목은 '나'라는 주(主)다. 신앙고백의 주체가 '나'여서 내가 기준이되어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 예수에 가까울까, 아니면 바리새인에 가까울까?'(72p)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만 빼고 다 애기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는 것에만 신경 쓴다. 우리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태를 변호하려고 한다. 논리적인 질문에 모두 다 답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거라고 지적한다. 도덕, 정치적 관점, 죄, 지옥, 미식축구 선수인 팀 티보와 같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집중한다.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하셨다. _243p

우리가 우리를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정한다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슈와 삶과 관련 없는 문제들에 귀를 막고 '우리교회'에만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나아가 봉사도 하는 나이스한 성도로 살 수 있다. 허나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두고 싸워야 할지 잘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당신이 싸울 만한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곧 자기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말이다. _183p

예수는 직접 우리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다(24p, 달라스 윌라드 재인용).

결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라 하신 적이 없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 하나님의 일이 그 어떤 고통도 없이 이뤄지리라 믿는다면 지금이면 충분하다. 혹시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은 채 일부분만 허용하여 살면서 복음대로 산다 자평하지는 않는가?

십자가를 목에 매달 뿐 아니라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아 성육신한 삶으로 '세상에 새겨진 문신'과도 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그 학생의 말이 맞다. 우리는 헌금으로 적당히 지불하고 예배서비스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의 눈에 보인 우리의 교회생활이 어찌면 돈으로 적당히 영적 생활을 사는 데 그친 모습일지 모른다. 만약 그 학생이 지금의 교회의 험한 모습들을 보면 무어라 질문할지 끔찍하다. 그 끔찍함은 우리가 누구도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자리에서 삶과 사회와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 지금에 이른 것일 수도 있다. 저자는 그런 질문에 아주 평범하고도 따뜻한 답변을 준다.

저자는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당시 구별되었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는 결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평범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삶이 있다. 우리 육신 안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갈 4:19) 살아야 할 그 삶을 생생하게 살길 스스로에게 바란다.



글 | 신효영

건국대에서 디자인을, 총신대에서 기독교문화를 공부했다. 출판사 편집부, 미디어 강사를 거쳐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 편집인으로 있다.